1123(수) 고린도전서 15-16장 참으로 부활을 믿는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영향아래 있던 고린도교회는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간과 혹은 침묵했습니다(15:33).
부활 없는 복음은 세상 교훈/격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참 메시아 되심이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졌으며
약속하셨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15:1-19, 롬1:3-4, 행2장)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메시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헛됩니다.
십자가 대속도 유효하지 않으니 여전히 죄에 머물게 되며
성령의 내주하심도 없고, 거듭남 또한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재림하실 것이며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15:20-28, ordering/ placed in order)

부활의 날에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연약하고 유한한 현재의 몸과는 달리 새로운 세상에 맞는,
주님께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파괴되었던(unmaking) 창조가 온전히 회복되고
재창조(remaking) 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톰 라이트]

나는 부활을 믿습니까?

❶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❷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시작기도 + 통독 고린도전서 15-16장